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4. 2. 26.(월) 11:00 < 2.27.(화) 조간 > 배포 2024. 2. 26.(월)

산업·에너지 연구개발(R&D), 젊은 연구자 역할 확대

330개 대학·연구소 대상으로 신진연구자 현황 파악 나선다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, 이하 산업부)가 신진연구자를 대상으로 정부 연구개발(R&D) 참여 확대와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본격 착수하고, 우선 대학·연구소를 대상으로 인력 풀 구축에 나선다. 지난 1월 18일 발표한 「산업·에너지 R&D 4대 혁신방안」에서 산업부는 산업에너지 연구개발(R&D) 기획과 평가 과정에서 젊은 신진연구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, 주요 기업과 네트워크를 쌓도록 지원함으로써 세계적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. 또한 우리 산업 혁신의 경계를 넓히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신진연구자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장(場)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.

산업부는 총 330개 이공계 대학·연구소를 대상으로 오늘 2.27(화) 공문을 발송하고 3주에 걸쳐 신진연구자 현황 조사를 실시한다. 신진연구자 범위는 박사 학위 소지자 중 학위 취득 후 7년 이내, 만 39세 이하 또는 조교수 이상으로 임용된 지 5년 이내인 연구자이다. 이들을 대상으로 전문분야, 연구성과, 산학협력 수요, 협력대상 기업, 정책 아이디어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. 대학·연구소 등 기관별로 조사에 참여하거나 신진연구자 개인 자격으로 산업기술진흥원(kiat.or.kr)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.

산업부는 금번 조사를 통해 구축되는 신진연구자 인력 풀을 활용해 ▲투자 의사결정 ▲사업·과제기획 ▲수행기관 선정 ▲R&D 과제 진도점검·성과평가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. 또한 혁신의지가 높은 기업, 해외 연구자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자리도 마련한다.

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“잠재력 있는 젊은 신진연구자들이 미래기술에 도전하고 글로벌 스타연구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성장 기반을 다지는데 힘쓰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산업기술정책과	책임자	과 장	정 권 (044-203-4510)
		담당자	사무관	최재혁 (044-203-4513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